19. 대허리 류의 경기도 전파 양상 〈도 19〉

대허리(단허리) 류는 일반적으로는 손으로 논지심을 훼칠 때의 소리이며, 충북 충주시를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인 충청도, 강원도 및 경기도에 전파되어 있다. 발음구 예는 “어화 굽실 대허리아” “오 엇자 단허리아” 등이다. ‘대허리’ 또는 ‘단허리’란 논지심을 매기 위해 허리를 굽힌 길에 단숨에 헐칠우자고 할을 독려하는 뜻으로 풀이된다. 이와같이 매약별에 온종일 허
리굽혀 일하느라 지친 몸을 “이번 참 매고서 막걸리 먹고 쉬자”고 위로하며 독려하는 소리는 농요만이 아니라 모든 단체노동요에서 공통된다. 충주시를 비롯하여 충청도에서는 단허리와 대허리가 공존하나, 후자가 더 우세한 편이고, 강원도에서는 단허리가 우세하다. 경기도에서
는 한강과 북한강 이남의 동남부 방면인 양평·여주·이천·안성·용인·평택군에서 수렴되며 평택군과 인접한 화성군의 양감면·장안면과 정남면 괴랑리에서도 발견된다.
양평군은 13마을에서 단허리 류를 수집한 중에서 지체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허리 형이 었다.

A. 단허리 형
양평(12마을) : 강하면(강창2리), 강상면의 병산리와 이금봉(여주군 출신) 창, 단일면(신음2
리), 양평읍(백안2리 장골), 양등면(서곡리), 옥천면의 아산1리·옥천2리·옥
천3리, 청운면(갈운3리), 용문면의 다문리·덕촌리.
여주(6마을) : 강천면(도천리), 금사면(궁리), 농서면(용은리), 북내면(지내리), 점동면의 도
리·혼암리.
이천(3마을) : 모가면(전가리), 신둔면(수하리), 울면(고당1리),
안성(2마을) : 금량면(상길리 중촌), 안성읍(도기동),
용인(3마을) : 모현면의 매산리 전만길 창(대허리와 공존), 원삼면의 사암리 장화춘 창과 맹
리 이봉의 창(수지면 상향리 출생).
평택(4마을); 서탑면(금암2리 안말), 오성면(숙성2리), 포승면(홍원1리), 옛 송탄 화성(1여마을); 장안면(장안리).

B. 대허리 형
양평(마을); 지체면(지평3리).
여주(마을); 가남면(대신1리), 북내면(상교리), 점동면(현수리).
이천(1마을); 장호원의 와현2리 호현(단허리).
안성(3마을); 삼죽면(내강리), 서운면출신 박정희 장, 원곡면(성은리).
용인(1여마을); 원삼면의 조중래 장. 모현면의 메산리 전만길 장(단허리와 공존)
평택(1마을); 진위면(봉남리).
화성(2마을); 양갑면(대양1리), 정남면(례방4리).
광주(1마을); 오포면(추자리).

C. 단허리 형인지 대허리 형인지 불명확한 경우
안성(1마을); 양성면(단실2리 재인).